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평가와 미래 협력 과제" -경제 분야-

이상준(국민대)

KIEP 전문가포럼 세미나(2022년 3월 11일)

1. 한중앙아 협력 성과

□ 한중앙아 주요 성과 요약

전략 원칙	이니셔티브	대상국	협력 내용
사람	K방역·보건의료	우즈베키스탄	K의료 시스템 전수
		카자흐스탄	한국진단검사기관
		북방 9개국	신북방 의료인 양성
		북방 개도국	보건의료 ODA
	문화·교육 교류	북방 개도국	우수 유학생 유치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
번영	금융·혁신 플랫폼	우즈베키스탄	스마트 팜, 농기자재
		북방국가	종자개발 및 보급
		우즈베키스탄	한우즈벡 금융협력
	디지털·그린 협력	우즈베키스탄	현지금융 활성화
		우즈베키스탄	FTA 추진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화학연구원
		우즈베키스탄	환경분야
	산업인프라 협력	북방 7개국	국가 전자무역 플랫폼
		중앙아3국	한우즈벡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
		북방국가	디지털 정부 역량 강화
평화	통합 네트워크 구축	중앙아3국	플랜트 사업 진출
		북방국가	한-유라시아 펀드, PIS 펀드
	지역별 맞춤형 협력	우즈베키스탄	섬유기술 협력
		투르크메니스탄	섬유기술 협력

□ 한중앙아 협력 문제 제기

- 신북방정책이라는 정책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는가?
- 우즈베키스탄 이외 국가들과는 실질적인 협력이 있었는가?
- 중점협력국을 확대하였지만 새로운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발굴되었는가?

2. 한중앙아 협력 대상 국가들의 협력 환경

□ 글로벌 변화의 고려와 비전 설정

○ 미래 발전 방향의 전반적인 특징

-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육성을 적극 채택하고 있음.
- 비산유국 뿐 아니라 산유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보건 안보 등 사회경제 안보에 관한 정책 지원 강조.
- GVC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

○ 협력 비전

- 공동 번영, 미래성장, 연결성, 교통회랑->무역회랑->경제회랑, IT 및 디지털, 교육, 고려인, 비핵화 포럼

□ 중앙아 지역 변화 반영

○ 지정학적 변화와 새로운 길

- (과거) 중앙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은 주로 러시아, 즉 북에서 연결되어 왔음
-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EU의 TRACECA, CAREC 등으로 동과 서쪽으로의 교통 물류·에너지 운송망이 건설되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음
- (미래) 우즈베키스탄이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아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조성되기 시작함. 또한 카스피해 해양경계획정으로 카스피해를 해저로 이어지는 에너지 운송망 가능하게 됨.
- 물론 아직 내륙국가로서 중앙아 지역이 가지는 교통물류의 불리함은 많지만 이 지역으로 연결하려는 강대국의 노력이 지정학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 새로운 협력구도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대안 찾기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여전히 강하게 작용
-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 인도양으로 향하는 출구를 통한 대안 찾기 노력 경주
- 셰일 가스 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운송망 변동에 대안 찾는 노력 병행
- 중앙아 순방 3개국을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경제발전과 이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과제를 가지고 있음

○ 협력 대상 국가들의 특성 반영한 차별화된 협력 방안 제시 필요

- 반면 내륙 중앙아 6개국, 카프가즈 3개국은 한 두가지 특징만 보여 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별 특성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유국에서는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경로 다변화 추진.
- 비산유국 저발전 국가들은 농업, 섬유 등 일자리 창출형 산업기반 마련 추진.

□ 개발협력 강화

○ 다자 간 프로젝트 발굴

-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관세 행정시스템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교통물류회랑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 역내 분업 및 밸류체인 조성 기여

-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 4개국은 섬유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산업육성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산업육성은 주로 섬유산업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이러한 발전 전략을 선택한 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대 경제에서 국제분업은 거의 필수적임.
- 각국이 경쟁하면서 더 생산성 높은 섬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역내 분업구도를 고려하면서 역내 섬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코로나19로 세계 대유행으로 경쟁력 있는 역내 분업구조는 과거 글로벌 분업구조를 대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아 전문가의 ODA 참여 활성화

- 개발협력 사업에는 어느 정도 원형이 존재하지만 이를 특정 지역에 투사할 경우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협력은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는 내륙국가라는 한계점과 지중 공간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한국과 개발협력하면 이 지역의 단점은 줄어들고 장점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범용성을 이유로 개발협력 사업의 원형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협력을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임.

3. 미래 과제 도출

□ 카자흐스탄

○ 국가발전 전략 2050 달성 목표 세분화

- 코로나19 팬더믹으로 2020년 GDP 3.2% 감소함. 세계은행은 2021년 2.5%, 2022년 3.5% 성장을 예상함.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글로벌 수요와 가격에 따라 경제회복세가 영향을 받을 것임.
-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의 빈곤율이 2016년 6%에서 2020년 12~14%로 증가한 것을 추정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략은 2050까지 마련된 대원칙을 통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 산업의 개발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유가 리스크 축소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자원 산업 육성에 적극적임. 산업 성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 농업 및 IT 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3대 경험 프로젝트 실패의 교훈

- 발하쉬 화력 발전소는 화력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공동 전력 시장 구축과 연계되어 있음.
-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과 잠블 석유개발은 중국의 파이프라인이 들어오면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됨.
- 중요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경우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략 2050,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 발전전략 적극 반영 협력 방안 도출

- <국가 전략 2050>을 실천하기 위한 5개년 계획으로 <국가발전계획 2025>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발생한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이고 질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우선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카자흐 경제의 자급자족성을 높이며 산업다각화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유치한 뒤 수출을 촉진하여 GVC로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10대 국가 우선 과제는 ① 공정한 사회 정책, ②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보건 체계 구축, ③ 교육의 질 개선, ④ 국가의 국민 이익 보호, ⑤ 새로운 정부 모델 개발, ⑥ 애국심 고취, ⑦ 국가 안보 강화, ⑧ 다각화된 혁신 기반의 경제 구축, ⑨경제 발전 및 교역 외교 추진, ⑩ 균형적인 국토 발전 등임.
- 산업분야는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5% 감축을 포함해 공산품 수출 증가, 운송 및 물류, 항공 우주 서비스, 엔지니어링,

정보 통신 기술 (ICT), 의료 관광과 같은 신규산업의 육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ENI 등 기진출 외국기업과 투르케스탄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 등을 건설하고 누르술탄을 디지털 스타트업/벤처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또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 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미 마련된 2025년까지 경제발전을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 <누를리 졸 2020-2025>, 제조업 기술 개발, 생산품목 확대, 디지털화 등 제조업 역량 강화 <산업혁신 발전 2020-2025>, ICT 산업발전 및 ICT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국가 디지털화 추진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 등을 통해 신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다각화로 자원의존적 경제구조의 질적인 개선 추진.
- 카자흐스탄은 누르술탄으로 개명하는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자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인 서중국-남서부카자흐스탄-서부러시아로 이어지는 노선을 선호함.
- 2022년 1월 사태 이후 기존 발전전략을 고수하겠지만 발전 계획의 변화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의 유망분야

-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농업, 교통 인프라,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등 분야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누르술탄 및 주요 도시 개발 사업 참여 및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
- 농업현대화 및 스마트 유목
- 산업발전 단계와 글로벌 벨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에 맞는 기술이전 및 클러스터 조성
- 카자흐스탄의 지경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물류 인프라 시장 개발 참여 및 무역확대, 인프라 연관 전후방산업(철강 등) 협력 강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협력
- 인프라 개발과 산업다변화 등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 수출소득으로 축적한 국부펀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경제규모, 금융수요에 비해 많은 금융기관으로 인해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이 낮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협력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 지향점

- 우즈베크 정부는 올해 보건·의료부문의 개선과 함께 사업환경 개선과 경제 자유화 확립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경제 부문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대외부채 등을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해서 안정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함.

- 우즈벡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 추진.
- 2022년 경제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물가상승률을 10%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방지하고자 함.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필수 식료품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식료품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입세 감면 혜택을 2021년까지 연장할 예정임.
- 인구의 5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6억 달러를 대출과 지원금 형태로 제공해 농업 디지털화, 토지 비옥도 개선, 농업 신기술 도입에 사용할 예정이며, 관개 효율화 장치를 도입한 토지는 최대 43만 ha까지로 현재보다 5배 확대할 계획임.
-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해 추진하였던 WTO 가입도 빠른 시일내 협상을 종료하도록 노력하면서 EAEU 옵서버 국가로 있으면서도 유럽연합(EU)과 협력도 동시에 강화하는 균형적인 대외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우즈벡 정부는 2021년 우즈베키스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규모 목표를 '전년 대비 20% 증가'로 설정하고, 수출지원 펀드에서 수출기업에 1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가장 완만한 국가로 꼽히고 있음.¹⁾

○ 우즈베키스탄의 유망분야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제조업, 의료, 교육 분야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디지털, 농업, 물류·운송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연구교서에서 지적함.
- 섬유 테크노 파크 중심 한·우 비즈니스센터 설립: 수르길 석유화학 추출 섬유 원료 활용 및 섬유 산업 고도화
- (스마트) 신도시 개발: 타슈켄트 스마트시티, 사마르칸트 300만 대도시화 사업.
- IT 소프트웨어 및 게임 분야 벨류 체인 연계: 게임분야 우즈베키스탄 전문인력 참여, IT 중심대학(예: 인하기술대학) Aid for Trade.
- 농업 생산-보관-유통-검역-수출 일관체계 지속 협력
- WTO 실무단 협의 KSP
- 수르길 형 자원-인프라-생산 솔루션 중심 협력 사업 지속 개발
- 태양광 협력 사업 및 관련 분야 협력: 국제금융 조달 공동추진 및 태양광 발전용 저가 반도체 공동생산
- 희토류 발굴 및 가공 산업 육성
- 남부 아시아전력망 연계 CASA 1000 및 전력망 현대화

1) KIEP 세계경제 포커스

- 디지털 기술 기반 물류 시스템 개선 협력
- 타슈켄트 스마트시티 건설 등 ICT 분야 협력 심화 방안
- 양국 대학 및 고등교육·연구기관의 협력 심화 방안
- 혁신 경제 구축을 위한 R&D 협력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 투르크메니스탄

○ 정상회담 정례화 및 정상회담 의제 실현

-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양국 정상간 실질협력 강화방안 논의하여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프라, 플랜트, 교통,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증진하고 교육, 스포츠협력 등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하며 지역, 국제 무대 협력도 강화해야 함.
- 정상외교에 따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간 긴밀한 협조 유지 및 후속조치 필요. 이를 위해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한국-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국가발전 전략 반영

- 양국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투르크멘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희망 분야는 화학플랜트건설, 교통(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인프라건설, 통신시스템구축, 주택건설 및 건설자재산업육성, 농업현대화 등임. 에너지 전환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함. 사막 기후 특성상 태양광 및 풍력 사업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잠재력이 높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협력기금) 활용하는 전략적인 협력 필요함. MDB 등 다양한 금융을 활용한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공동의 노력.
-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10위 면화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면화를 활용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및 무역 확대 필요함.
- 새로운 협력 분야를 계속 발굴. 한국정부는 의료협력, IT, 농업, 산업기술교육 등 무상원조 확대와 인프라 건설 및 농업개발 등에 투자 지원하여 민간의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키르기스 공화국

○ 개발협력의 가치 구현

- 키르기스 공화국은 새롭게 KOICA ODA 중점대상국으로 편입되었고 이낙연 총리의 키르기스 공화국 방문 이후 양국 간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됨.

- KOICA 지역개발 지원사업(마을 인프라 개선, 주민 역량강화, 취약계층 참여기반 마련 등)과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적극 추진

○ 전자정부 구축, 정부 행정 시스템 개선

- 2017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주민카드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키르기스 공화국 신분체계 확립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
- 키르기스 공화국은 전자정부 도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분야 전망이 밝음.
- IT 기술, 전자정부 운영 경험, 공공서비스 효율화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키르기스 공화국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농업 분야 협력 강화

- 키르기스 공화국은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지역 개발 (Regional development)을 선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키르기스 공화국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새마을 사업, KOICA의 새마을기반 지역개발 시범 사업·유기농업정책 지원 사업, 농촌진흥청의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AFACI) 운영 등을 통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
- 2020년 우리 농촌진흥청의 국제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프로그램이 발족 예정인 바, 우리의 선진적인 농업 기술 전수, 키르기스스탄 농민들의 농업기술 역량 개발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업 분야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타지키스탄

○ 현지 수요 중시 맞춤형 협력 전략

- 타지키스탄은 독립 후 지난 28년 동안 여러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해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18년도 명목 국민소득 825.77 달러 (PPP 3,426 달러)로 중앙아 5국 중 최빈국, 빈곤층 27.4%, 3~4% GDP 성장률, 농촌인구가 대다수인 ‘저소득 국가’(World Bank의 분류)임.
- 타지키스탄은 ‘국가발전전략 2030’에서 제시한 주요 부문별 정책을 제시하였음. 즉 에너지 효율 강화(수력발전소 건설, 송전망 확충, 재생에너지), 식량 안보 강화(종자개량, 스마트 팜 등), 산업 다변화(IT, 섬유, 전자, 보건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도로, 철도, 국가통신망 등) 등.
-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은 상기 정책 추진을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고려하면서도 산업발전 수준, 국민 생활수준,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현지 수요 중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음.

○ 한-타지크 총리 회담 의제 실행

- 한국과 타지키스탄 총리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수자원 및 희소광물자원 개발, 에너지, 항공, 보건, 관광, 농산물 가공 등의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 교환함
- 라술조다 총리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과 참여 희망하고 있음.
- 한국도 수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낙연 총리의 타지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산림협력사업 MOU”가 체결되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2016년 9월 발효) 개정의정서”가 가서명되었음.
- 산사태 등 현지 수요에 입각한 ODA 사업 추진 필요함.

□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강화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중앙아 포럼, 카라반 행사 연계강화
- 현지 공관 및 역대 대사, 우즈벡 진출 고위직 자문관, 교육원, 진출 기업, 연구기관, 한-중앙아 사무국, 학계, 국내 중소기업 외 유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중부권역(중앙아, 몽골)에서의 실질적 성공사례 구현 위한 토대 구축, 개도국의 경제현대화 지원하는 모범국가상 제고

○ 대통령 방문시 체결한 MOU 및 각 국가별 주요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의제 발굴에 만전

○ 양자간, 다자간 금융지원체계 수립

- EAEU 개발 은행 EDB (Eurasian Development Bank)와 협력하여 전력/운송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중앙아 국가 정부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창구 확보

○ 고려인 동포 포용적 모습 관련 사업 개발